

지역기반 자녀돌봄 공동체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참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Community-based Childcare:
A Case Study of a School-age Childcare Community of Participants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강 사 전 지원**

Dep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Chun, JeeWon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돌봄공동체 참여 및 운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공동체의 구성원 중 직업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10인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 영역인 자녀돌봄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가족친화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상생의 돌봄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증진에 유용한 복지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초등돌봄 정책, 가족친화 지역사회, 복지자원

〈 Abstract 〉

Despite efforts to expand public care services as social demands increase, the problem of the after-school self-car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were in the situation of care cliff remains. Thus, this study focused on community-based childcare to solve the issue of school-age childcar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community-based childcare of participants who had school-aged children who liv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Korea).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married working mothers among clients of a community-based childcare provider that has been operating for more than five year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clear that community-based childcare is a useful welfare resourc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data for developing policies and programs for school-age childcare or the after-school self-car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urthermore, it may broaden the horizons of research related to community-based childcare.

Key Words: Community-based Childcare, School-age Children Care policy, Family Friendly Community, Welfare Resources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9S1A5B5A07090530)이며, 2021 가정학분야 춘계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임.

**주저자, 교신저자 : 전지원(cjeewon@sookmyung.ac.kr), <http://orcid.org/0000-0001-8036-0580>

I. 서론

초등학교의 돌봄공백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교 자녀 돌봄공백은 일하는 부모 중 여성(어머니)의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0년 1월 30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 이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공교육 기관은 4차례 휴업명령과 개학 연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학기 시작 이후에도 비대면 원격 수업과 가정보육 장기화로 초등학교의 등교 차질이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긴급돌봄교실 실시 등 가족과 공공기관의 여러 돌봄유형을 제안하며 돌봄공백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로 인한 파장은 코로나-19 이후 초등학교 자녀를 둔 39~44세 여성 집단의 비경제활동 이행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 2021).

정부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와 돌봄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온종일 돌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초등돌봄 공적 공급을 2017년 33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년 4월 11일자).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면 초등학교 수 2,693,716명을 기준(2020년)으로 할 때 공적돌봄 이용률이 12.5%에서 18.7%로 증가되지만, OECD Family Database(2021)에서 공시하고 있는 OECD 국가 아동(만 6세~11세)의 공적돌봄 이용률 평균 28.6%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일·가정 양립의 결정요인 중 하나인 초등학교 자녀돌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공적돌봄은 여전히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만큼의 돌봄공백을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공적돌봄의 확대 추진과 함께 다양한 주체의 돌봄 서비스 유형이 발굴·확산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장명림 외, 2018).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이며 획일화된 돌봄서비스가 아닌 초등학교 자녀를 포함한 해당 가족구성원,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의 필요함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지역기반 공동체의 돌봄 제공이 주목받는 이유는 돌봄 자체가 생활의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돌봄서비스는 대표적인 관계제이자 경험재로서, 제공자와 이용자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Pestoff, 2009).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돌봄서비스 생산 주체로 지역기반 공동체가 역할을 할 때 해당 지역의 특성과 구성원의 욕구를 명확히 파악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즉, 지역

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를 단순히 주민모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족정책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는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의 철학으로 1999년부터 독립된 형태로 시작되었다(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홈페이지). 미취학 자녀돌봄 공동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에 대한 경험 연구는 실제적 성과에 대한 심층적 규명이 다소 미약한 실정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을 보이는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일차적으로 대상별 돌봄공동체에 대해 제도적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한 유형으로 인정을 받아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공동육아 방식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는 제도권 내 돌봄으로 인정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공식적 전수 확인이 힘들 뿐 아니라 이들의 운영과정 및 성과 확인이 어렵다. 공동육아 방식의 상시 돌봄을 진행하는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경우 미취학 자녀돌봄 공동체에 비해 적은 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례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등록(2021년 6월 기준)된 미취학 자녀대상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전국 총 72개소이지만, 초등과정 공동육아 형태 중 초등방과후는 전국 총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끝으로,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지속성이 결여된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자녀돌봄 공동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동체가 지속되지 못하고 해산되는 경우가 많다(한그루·하현상, 2019). 돌봄공동체의 지속성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상황적 조건 등의 협력과 관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조직으로서의 정관 및 규정을 갖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년간 돌봄공동체의 참여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돌봄공동체 참여라는 동일한 상황만을 고려한 선행연구(장수정·송다영·백경훈, 2019; 조유성·한창근, 2019)와 차별화하여 취업 중인 기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직업활동 중에서도 자녀돌봄 서비스의 생산자와 수혜자의 역할을 동시에 경험한 당사자들이 말하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속적이며 안정된 운영에 필요한 요건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가 공공복지의 공백을 채우며, 실효성이 확보된 복지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초등학교 자녀돌봄과 지역기반 공동체 활동

오늘날 자녀돌봄에 관한 여러 이슈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가정이 아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제도적 돌봄서비스는 돌봄공급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돌봄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은 고려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단점이 있다(이재희·김근진·엄지원, 2017). 최근 정부가 초등학교 대상 공적 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온종일 돌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1조 1,05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돌봄 인프라를 확장하려는 노력은 고무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된 아동권리 측면을 반영되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다(최현임·손가현, 2021). 시장 역시 돌봄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돌봄의 양과 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열악한 자녀돌봄 상황을 더 악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비판되었다(이아승·심미승, 2020). 돌봄의 시장화는 공급자 간의 경쟁과 수익만을 추구하여 돌봄서비스 수준을 저하하고 돌봄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양상들은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즉,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돌봄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었다. 차성란(2019)에 의하면 사회적 돌봄은 가족·지역사회·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돌봄 기능이 가족으로부터 이탈된 탈가족화와는 구분된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적 돌봄은 부모의 자녀돌봄 참여를 전제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를 활성화하지만, 탈가족화는 부모-자녀관계를 단절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돌봄의 실현 방안 중 하나는 공동체를 통한 돌봄 제공이다. 공동체는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와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박병춘, 2012) 혹은 상호동일한 정체성, 목적, 이념들을 가진 구성원들의 집단이라는 보편적 견해를 따르는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황선영, 2020). 이러한 공동체는 구성원 간 형성된 친밀감이나 사회적 유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김희연·유영성·고재경, 2014) 새로운 관계맺음과 공존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장점이 있다(김소영 외, 2017). 즉, 협력하며 살아가는 방식인 공동체 활동은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으로, 나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으로 변환되는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다(Barber, 1984). 공동체에 지역성의 요인을 적용한 지역기반 공동체에 관하여 하현상과 이기태(2017)는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유대를 형성하면서 일정한 지역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 간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최근 돌봄의 이슈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돌봄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장소로서의 지역사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가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계를 맺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돌봄공동체는 공동의 욕구에 의한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유형부터 정부 주도의 사업 대상에 이르기까지 참여자의 자발성, 활동의 주체성, 민주주의적 운영 수준 등에 있어 다양하다(차성란, 2020). 김희연 외(2014)는 지역기반 공동체가 형성되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동체 간 연대를 통해 사회적 관계도 확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돌봄을 목적으로 형성된 지역기반 공동체는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대상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 복지전달 과정을 최소화하는 사회혁신을 가능케 한다고 하였다. 황선영(2020)은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호혜성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돌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기반 돌봄공동체는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통해 제도적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적돌봄의 한계와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돌봄을 위해서는 아동의 생활공간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돌봄공동체의 활약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진미정, 노신애와 김아영(2018)은 지역기반 돌봄공동체 유형을 추진 주체에 따라 주민주도형과 행정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주민주도형은 지리적 근접성이 확보된 이웃 간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품앗이육아, 공식적 조직으로서의 정관 및 규정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동육아, 부모협동어린이집, 대안학교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주도형은 중앙정부 주도형과 지자체 주도형, 교육청 주도형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주도형은 여성가족부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교육부의 온종일돌봄사업 등이 있다. 지방정부 역시 자녀돌봄 공동체 활성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과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경기도의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구. 서로돌봄 사업과 복지공동체 사업)과 마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공동체 부문),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공동육아지원 등이 있다. 지역 교육청 주도로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녀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7년에 제정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4항에 따르면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김소영 외(2017)는 해당 법령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하여 동 법에 근

거하여 추진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을 평가하면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 사업'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가족 생활주기와 지역사회 적합성(life stage-neighborhood fit)이 확보될수록 가족친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Swisher, Sweet & Moen, 2004)는 관점에서 볼 때, 초등학교 자녀돌봄을 매개로 형성된 돌봄공동체는 참여 가정 간뿐만 아니라 가정-지역사회 간의 상생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기반 자녀돌봄 공동체는 자녀돌봄에 유용한 자원으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과 자녀돌봄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진미정(2018)도 지역기반 공동체 사업들은 주로 돌봄을 핵심 전략으로 택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가족친화적 마을환경을 만드는 사업과 관련이 된다고 하였다. 즉,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자녀돌봄을 포함한 가족돌봄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여 가족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김경아 외, 2020). 이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는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지원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

중앙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써 '함께 돌봄' 문화의 조성이 필요함을 제기하며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 중인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여성가족부, 서울시 및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지원제도는 만 12세 이하로 돌봄대상의 연령기준은 동일하지만, 사업의 세부적 사항은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에서는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되, 형제자매가 포함시 초등 저학년까지만 돌봄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돌봄공동체 형성 가능한 최저 인원 기준은 소관부처별 다른 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 경기도(10명 이상), 여성가족부(5명 이상), 서울시(3명 이상) 순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주체를 돌봄공동체에 국한하였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업 가능 등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지원기간과 지원금에 있어서는 주체별 큰 차이를 보였다. 지원기간은 최소 7~8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의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며, 지원금 역시 돌봄공동체 사업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경기도는 개소당 1억원 이내 지원하며, 지원금 일부인 5천만원 이내로

돌봄공간 시설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는 돌봄공동체의 돌봄공간으로 실내공간 사용시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을 권장하며 시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경기도는 돌봄아동의 거주지와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마을회관 및 주민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이용하되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품앗이형, 마을공동체형, 주민 경제조직형으로 구분된다. 품앗이형은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돌봄 활동하는 부모 자조 모임과 품앗이 그룹을 들 수 있다. 마을 공동체형은 부모 및 지역 주민이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활동을 진행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끝으로 주민 경제조직형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이다. 앞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기반'은 '거주지와 직장 및 학교 등이 위치한 생활권'(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21) 중 거주지에 기준을 두며,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는 품앗이형을 제외한 공식적 조직으로서의 정관 및 규정이 있는 마을 공동체형과 주민 경제조직형의 방식으로 운영 중인 돌봄공동체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한편, 초등방과후 돌봄에 참여한 부모, 교사, 현장 활동가의 경험을 살펴본 장수정 외(2019)의 연구에 의하면 공동육아 방과후 돌봄은 초등돌봄교실에 비해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돌봄 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성찰로 단순히 보호차원이 아니라 돌봄공간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조유성과 한창근(2019)은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참여 경험을 통해 어머니 차원에서는 양육태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지역사회에 대한 관점 변화, 자기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아동 차원에서는 또래 집단과의 교류, 성격의 변화, 모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가 변화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적돌봄과 차이점, 돌봄공동체 참여로 획득된 개인 차원의 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등이 획득된 결과 위주로 제시되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지 못한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양상을 참고하기 위해 미취학 자녀돌봄 공동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협동어린이집 참여자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황선영(2020)은 '구성원들 간의 동상이몽'이라는 중심현상을 제시하며 돌봄공동체는 공동육아에 대한 목적은 일치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향하는 가치관이 나 방법론에 대한 비등점이 달라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 가능한 점을 언급하였다. 김기영(2016)은 공동육아협동조합에 가입 시 출자금과 매월 보육료 및 조합비를 내야 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출자금은 공동육아 전체적인 운영에 운용되는 자금으로 졸업 혹은 탈퇴시 되돌려 받는 돈이지만,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돌봄공동체 지

〈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지역기반 자녀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2021년 기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돌봄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만 12세 이하 아동(돌봄아동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함. 단, 형제자매인 경우 초등 저학년 포함 가능)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교 이하)
신청 자격	• 3명 이상의 돌봄 주체자와 5명 이상의 아동으로 구성된 공동체	• 3가구 이상 주민모임 - 3명 이상의 아동에게 돌봄 제공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 가능(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아이돌봄 관련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아동돌봄공동체(10명 이상 주민모임) - 경기도 내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 - 지역 내 단체와 협업 가능(의무사항 아님) (예)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아동돌봄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지원 금액	• 돌봄공동체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짐	• 돌봄아동수를 기준으로 공동체 사업 규모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짐. - 3~4명은 250만원, 5~6명은 300만원, 7~8명은 350만원, 9~10명 400만원, 11명 이상 450만원	• 1억원 이내 - 프로그램 사업비 : 5천만원 이내 (3년간 분할 지원, 1+2+2천만원) - 개소당 5천만원 이내(단년도 지원)
지원 기간	• 선정통보일~12월	• 1년 이내(재지원은 최대 3년까지: 기지원 포함) - 재지원은 선정심사위원회 통해 지원여부 결정	• 3년 (선정 후 3년 이상 사업유지 해야 하며, 사업 중간포기 시 투입된 사업비 반납)
지원 내용	• 기관 운영비 • 돌봄공동체 월별 활동비 • 기관 및 돌봄공동체 대상 컨설팅 및 교육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비 등	• 프로그램 사업비 - 강사비,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체험비, 임차료 식사간식비 등 • 돌봄공간 시설 공사비 - 시설공사비 금액보다 프로그램 사업비 금액이 반드시 커야 함

속적 참여를 결정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조막래와 김한별(2015)은 돌봄공동체를 포함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중단 되는 내부적 요인으로 회원 간 갈등과 공간임대 및 임대료 등 공간 운영에 대한 갈등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지역 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있으나,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및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는 제반 요건에 대한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민주도형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구성원 중 직업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10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네 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모집된 연구참여 의사가 있는 총 10명의 연구참여자에게 직접 전화로 연구대상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 후, 연구목적과 자신을 소개하는 사전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전인터뷰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선호하는

면접 장소와 시간을 확인한 후, 인터뷰는 집단별 약 2시간 정도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앞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의 자발성 및 중단 가능성, 녹음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참여 동기 및 참여 과정, 자녀돌봄 공동체의 참여 조건과 운영방식, 돌봄공동체가 가족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돌봄공동체 운영상의 어려움,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평가, 향후 원하는 돌봄공동체의 지원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질문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심층적인 체험을 자료로 수집할 수 있었다. 이상의 자료수집 과정은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중심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raun &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의 6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해당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인터뷰 직후에는 언어적·비언어적 자료를 최대한 간과하지 않기 위하여 전체 음성 파일을 연구자가 직접 텍스트 형태로 모두 전사(transcripts)하였다. 해당 녹취록을 읽으며 데이터와 친숙해진다. 2단계에서는 초기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심층면접 자료에서 주요 관심

현상에 대한 의미를 찾아 초벌 코딩한다. 3단계에서는 생성된 코드 중 유사한 내용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은 묶으면서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한다. 4단계에서는 주제가 코드화된 자료와 전체 자료에 부합되는지 파악한다. 5단계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주제의 의미를 정의하고 주제를 명명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끝으로 6단계에서는 선별된 내용에 대한 최종 점검 및 분석 결과를 기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연구자의 주관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잠정 확정된 내용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2인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적으로 결과를 완성하였다.

2.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참여자 선정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에 소속된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대상 돌봄공동체는 공동육아 방식으로 운영되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돌봄대상으로 모집하고, 정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특히, 돌봄공동체의 지속성에 비중을 두고 각기 다른 운영체계 형태로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된 돌봄공동체들은 여성가족부의 돌

봄공동체 사업,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 경기도 서로돌봄마을 시범사업 등의 수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돌봄공동체의 첫 번째 유형은 2011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마을 내 돌봄공간을 마련하고 상시돌봄에 대한 월이용료 납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2011년부터 출자금 기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 내 돌봄공간을 마련하여 공동육아 방과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돌봄공동체도 상시돌봄을 제공하며,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법인 산하 초등과정(초등방과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2012년 유아기 자녀 품앗이육아로 시작하여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공동육아 방식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로 이어져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 중이며, 공동체만의 독립된 돌봄공간이 아닌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개별 주거지에서 수시 돌봄이 이루어지고, 정기모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돌봄활동은 학년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모임(월/분기/총회)과 부모교육은 정례화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 문화예술체험, 공동체 체험, 특별교육, 봉사활동, 워크숍, 돌봄공간 환경 미화 및 청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참여자 ID	출생 연도	초등학교자녀돌봄 공동체 참여기간 ¹⁾	자녀수	자녀의 학년	자녀의 초등 이전 자녀돌봄 공동체 경험 여부(시작 시기)	친족돌봄 이용여부	교육 수준	직종
1차	A	1981	2년 5개월	2명	초 3학년 초 1학년	있음 (2014년)	없음	대졸	특수교사
	B	1973	5개월	1명	초 1학년	있음 (2015년)	없음	대졸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2차	C	1978	5년 5개월	2명	초 6학년 (쌍둥이)	있음 (2012년)	없음	대졸	취위생사
	D	1979	5년 5개월	1명	초 6학년	있음 (2012년)	없음	대졸	공부방 운영
	E	1977	7년 10개월	3명	중 3학년 초 6학년 (쌍둥이)	있음 (2012년)	없음	대학원졸	사회복지사
3차	F	1978	6년 5개월	2명	중 1학년 초 2학년	있음 (2012년)	없음	대졸	간호사
	G	1982	7년 10개월	2명	고 1학년 초 6학년	있음 (2012년)	없음	대졸	서비스업
	H	1982	3년 5개월	2명	초 4학년 유치원(7세)	있음 (2013년)	일부 병행	대학원 수료	대학 강사
4차	I	1977	4년 5개월	1명	초 5학년	있음 (2011년)	없음	대학원 졸	학교 상담사
	J	1979	5년 5개월	2명	초 6학년 유치원(5세)	있음 (2011년)	없음	대학원 졸	비영리단체 활동가

1) 첫 자녀를 기준으로 참여 기간을 제시하였으며, 다자녀인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첫째 자녀에 이어 다른 자녀들도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10인의 연구참여자의 인터뷰 자료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참여 사유,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지속 방안의 중심 주제가 도출되었다.

1.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참여 사유

1) 더 나은 돌봄 발견

연구참여자들은 더 나은 돌봄을 자녀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기반 자녀돌봄 공동체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참여 사유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자녀의 영유아기 때 지역기반 공동육아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돌봄에 대한 철학과 운영방식에 만족했던 경험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선택시 공적돌봄을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B씨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마을 안에서 아이의 방과후 돌봄을 하고 싶다고 남편을 설득했어요”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기반 돌봄공동체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이 마을로 이사를 오거나 자녀가 고학년이 되어서도 돌봄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의 참여대상 기준을 6학년까지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도 이야기하였다. 둘째, 직장생활로 인해 긴급돌봄과 틈새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적돌봄과 국가가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지만, 제대로 자녀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아 돌봄공동체를 선택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연령대는 다르지만, 공동육아 방식의 어린이집 이용은 맞벌이 가구의 자녀돌봄에 대한 돌봄시간

에 대한 부담을 축소시켜 일·가정 양립 지원 효과가 높은 것으로 검증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유해미·김문정, 2013).

OO동에 살다가 이 근처 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살면서 공동육아어린이집만 보낼 생각을 하고 다니다 보니 초등학교도 마을 안에 공동체돌봄을 했으면 해서 어머니 댁을 나와 이곳으로 이사왔어요. (#A)

이 동네는 공동육아 하려고 이사왔어요. 그때부터 쪽 어린이집부터 초등방과후(돌봄)까지 다니고 있어요... 원래 있었던 협동조합 방과후는 3학년 때까지만 다닐 수 있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고학년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초등방과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 아이가 7살 때 발기인으로 들어가 참여했어요. (#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야간돌봄이 9:30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학교돌봄은 아니잖아요. 제가 밤 9시까지 근무라서... 1학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만 집에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그 시간에 사람을 쓰기도 애매하고... (#C)

아이돌보미를 썼는데, 한 달 동안 도우미분이 세 번이나 바뀌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셋이니까 아이돌보미분들이 오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큰아이는 학교돌봄도 1학년 때 보내 봤는데, 2학년에 돼서는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가기 싫다는 데 어떻게 보내요... 우리나라 돌봄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해도

<표 3>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참여자 FGI 분석 결과

주제	하위주제	세부 내용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참여 사유	더 나은 돌봄 발견	- 긴급돌봄과 틈새돌봄의 어려움 해소 - 영유아기 자녀돌봄 공동체 참여 만족 경험
	돌봄공동체의 강점	- 자녀의 기질과 성향 이해 가능 - 자녀의 놀이권 확보 - 자녀의 협업능력 증진 - 부모의 지속적인 관찰과 참여 가능 - 자발적이고 정례화된 부모교육 실시 - 마을 안 유용한 인적자원 활용 - 마을 안 사회적 지지체계 획득 - 마을 안 돌봄활동 실천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지속 방안	돌봄공동체 운영상의 어려움	- 공동체 구성원 관계 - 재정 관리 - 돌봄공간 관리
	돌봄공동체의 안정적 운영 전략	- 제도적 지원방식의 다양화 - 운영진의 역량과 멘토의 조력 제공 - 돌봄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면 내가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더 지역 안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매달렸던 거 같아요. (#E)

연구참여자들은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참여 사유로 다른 공적돌봄에 비해 돌봄공동체 참여로 인해 획득 가능한 강점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대상별 분류를 해보면, 자녀-부모-지역사회 관점에서 구분 가능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별 기질과 성향, 관계 맺기와 상황 대처의 능숙 정도가 다양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돌봄환경에서 자신의 자녀가 생활하기를 원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돌봄공동체 안에서 혼합 연령의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참여 아동 간 연령 차이가 다양하다 보니 돌봄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상황 이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할 기회와 공동 의사결정 과정,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등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C씨는 “아이들이 크니까 프로그램할 때 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연초에 1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아이들 의견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어른들에 의해 구성된 프로그램만이 아닌 참여 아동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경험의 장도 마련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한 경험들은 자녀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유익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어 돌봄공동체를 선호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저희 아이는 분리불안이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낮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어려웠어요. 4학년 때까지도 큰 도움을 받았고요. (#D)

아이의 속도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게 좋았어요.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게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자신의 속도에 맞게 친척히 관계를 쌓아갈 수 있어요. 저희 아이 기질에 맞게 그런 곳이 필요했고 그런 곳을 찾아 너무 좋았어요. (#A)

저희 (돌봄) 아이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신나게 노는 거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은 특별한 장소나 도구가 없으면 놀 줄 못한다고 하잖아요... (중략) 제 육아 목표는 ‘우리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민주시민이 됐으면 좋겠다’인데, 학교 방과후는 그거와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아이들도 어떤 이슈가 일어났을 때 다 같이 모여서 모듬을 하거든요. 부모들이 반 모임과 소모임을 자주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정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모듬을 해서 결정해요. 모듬을 하면 자기들끼리 서기도 정해요. 부모들이 공동체 내에서 회의하는 과정을 아이들도 알게 돼서 그런지 잘 하더라고요. 놀 때도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I)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돌봄과 같은 공적돌봄에서는 부모가 직접 돌봄공간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돌봄공동체에서는 부모의 관찰과 참여가 가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부모가 돌봄현장에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부모가 직접 돌봄서비스의 생산과정에 공동 참여하는 특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들의 돌봄공동체는 부모교육을 다년간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연간 계획안에 부모교육이 몇 차례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엄마들이 자신들의 고민, 갈등 거리를 잔뜩 모아서 이런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줘요. 모인 의견에 맞게 강사 추천을 받고 모셔 와서 진행하니까 부모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 같아요.”라고 한 E씨의 이야기처럼 돌봄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협의가 이뤄진 주제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해당 주제에 대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추어 부모교육을 하는 등 체계성을 갖추고 진행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는 학교가 아닌 마을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가 궁금하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어 좋은 거 같아요... (중략) 남편도 마을 안에 있으니까 여기 공간에 대해 잘 알아요. 선생님들도 알고 아이 친구들도 알고 그 친구들 가족까지 아니까 (남편이) 저와도 아이와도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여기서는 마을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다 하면,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교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센터에 관한 주제에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성평등하게 키워야 하는지 6회기로 부모교육을 진행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여러 주제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접근해요. (#A)

스킨십의 차이인 거 같아요. 저희가 아이를 누구한테 보내고 맡길 때는 아이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이를 보내는 그곳의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나의 아이와 함께 지내는 아이의 부모님들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스킨십이 (공적돌봄에는) 전혀 없잖아요. 아이의 변화라는 게 고정적인 게 아니니까 달달이 변하나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학교돌봄은 그 교실에 부모들이 가서 보거나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디테일은 들여다볼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J)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돌봄교사와 돌봄과정 내 프로그램의 강사를 마을 주민들이 맡아주는 것에 대해 높은 신뢰를 하고 있었으며, 돌봄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해 두터운 연대감을 표현하였다. 다년간 함께 지내며 자녀돌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 감정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동네에서 인사하고 지내는 분들과는 다른 느낌이지요. 합의된 공동체 룰이 있고, 내가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게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훈육하는 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F)

최근에 저희 아이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돌봄공동체) 친구들과하고만 만나서 노니까 “다른 친구들 좀 사귀면 어때? 친구 데리고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까?”했더니, 아이가 “학교 친구들은 그렇게 노는 친구들이 아니야!” 한 마디로 다른 친구들인 거죠. 여기 친구들은 자기 허물을 보여줘도 되는, 고향 친구 같은 느낌이라면, 학교 친구는 회사에서 만난 친구 같은 느낌인 거죠. 공식적인 관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중략) 공동육아하는 곳이 많은 데 저희가 잘 된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일어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갖춘 마을 때문이라고 저희끼리도 이야기해요. 같이 고민하고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마을 안에 풍부해서 저희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I)

코딩이 유행이라서 여기 아이들도 가르치고 싶었어요. 전문 강사를 초빙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그럼 엄마들이 먼저 코딩을 배워보자고 해서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지원받아 몇몇 엄마들이 코딩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그 자격증 덕분에 재취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다 같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런 경험을 우리 여기가 아니면 어떻게 했겠어요. (#C)

자녀돌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 든든한 지지체계가 되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안에서 또 다른 돌봄을 실천할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공동육아를 시작으로 나를 돌보고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 확장해서 우리가 마을 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어르신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더 돌보자는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한 J씨의 이야기처럼 돌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내 또 다른 돌봄을 만들어내는 돌봄의 선순환이 되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연말에 아이들이 핸드벨 연습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에서 공연도 했어요. 봉사 하기 위해 석 달을 연습하고, 물론 아이들이 못하고 유치할 수 있지만, 멜로디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아이들의 성장과 부모 성장이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사회 안에서 또 다른 돌봄을 위한 시도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E)

마을 안에 발달장애청년들 공간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과 활동을 같이 하기도하고, 함께 활동한 걸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나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A)

한편, 코로나-19로 돌봄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는 새로운 모습들도 제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휴교 기간이 장기화하였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내 긴급돌봄이나 친족돌봄 등 자녀돌봄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상을 도운다거나 유휴공간을 빌려 함께 저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별 전 학년 등교 원칙을 제시하여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 학생들은 쌍방향 비대면 온라인 수업 대신 EBS 시청을 통한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다.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참여는 공적돌봄의 한계가 극복된 더 나은 돌봄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돌봄을 위해서는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돌봄이 생기더라고요. 엄마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이가 일어나지 못하면 온라인 수업에 출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일하면서 계속 전화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 집 아이를 깨우러 아침마다 가요. 진짜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클수록 방치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 손길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D)

1~2학년 같은 경우는 EBS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아이 혼자 수업 듣기 힘들거든요. 저학년이니까 집중도 못 하고 해서 다행히 우리 마을에는 유휴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빌려 엄마아빠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 빔프로젝터 설치하고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것도 약간 품을 낼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요. 직장인이지만 그 시간에 돌아가면서 잠깐 와서 셋팅 해 주고 아이들 케어를 하고 그래요. (#I)

다른 분들처럼 ‘우리 아이 어디로 보내야 하지’하는 걱정은 사실 안 했던 거 같아요... 저희는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코로나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서 여기는 똑같이 아침 8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어요... 우리(돌봄공동체)같은 게 없는 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어떻게 지냈나 싶은 거지요. (#J)

2.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지속 방안

1) 돌봄공동체 운영상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다년간 돌봄공동체의 구성원과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관계의 어려움을, 물적자원관리 측면에서는 재정 관리 및 돌봄공간 관리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돌봄에 대한 공동의 욕구는 가지고 있으나, 공동체 구성원 간 발생하는 돌봄공동체 운영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돌봄공동체 형성 초기에 참여 부모 간 그리고 아동 간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절대적인 적응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 중에 초기 참여자 중 부적응한 이탈자들의 발생이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의 돌봄공동체는 재정적 자립도를 확보하고 있어 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지만, 외부 지원이 가능하다면 상시돌봄을 실시하는 공동체의 경우 돌봄교사 인건비 항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아이와 엄마의 성향 파악이었어요. 구성원들끼리 교육관이나 성향이 다르면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선별이라기 보다는 기준을 정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엄마들끼리 합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끼리도 부딪침이 적고 잘 맞아야 했어요. (#E)

처음 여기 와서는 토론문화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보통 정해져 있는 걸 따르거나, 아니면 말고 하는 선택하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서로 회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지금은 이 방식이 이해가 되니 괜찮아요. 그런 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은 있어요. 이야기하다가 분쟁도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들이 열어지는 시점이 있고... 지금 지나고 보면 갈등 원인 팩트보다는 갈등 상황에 휘몰아치는 감정들이 더 강하고 문제더라고요. 갈등이 잘 해결되어 봉합될 수 있지만, 의견이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었어요. (#J)

조합이라 부모들한테 받은 돈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제도적인 재정적 지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의 월급, 복지를 잘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요. 출자금 제외하고 월 보육료가 아이당 38만 원이지만, 저희가 40만씩 내고 있거든요. 공공교((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소속되어 회비가 2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늘어나면 부담스럽거든요. 아이가 돌인 집은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이 돌인 집이 은근 많아요. 그 금액을 무작정 늘릴 수 없어요... 저희가 교사 처우를 잘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구조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I)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타격이 있지요. 이곳에 오는 아이들이 내는 활동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속되서 (운영상) 적정인원 수가 안 오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내는 돈으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 어려웠어요. 그때 여건 되는 부모들이 약간 기부금을 냈어요. (#A)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돌봄공동체 전용공간의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돌봄공동체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제한이 다소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자체 공간 확보에 대한 욕구는 있었으나, 부동산 거래가격 폭등과 직장생활로 인해 공간에 대한 상시관리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돌봄공간에 대한 고민은 상시돌봄이 가능한 돌봄공간이 마련된 돌봄공동체에서도 언급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여파로 돌봄공간의 임대료 상승, 돌봄공동체 구성원 이사 등의 가능성은 돌봄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희 인원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저희만의 공간이 없으니까 모일 때 장소 정하는 게 어려워요. 정기모임이 토요일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을 빌릴 때 보면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래요. 시간제한이 있어 너무 촉박해요.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흑 시간이 지나서 나가야 돼요. 빌려준 기관에서도 끝날 때쯤 되면 언제 끝나나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이니까 불안해하며 행사를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게 힘들어요. (#G)

돌봄은 거리가 중요해요. 묶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거든요. 요새 건다가(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마련해 준 공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지역하고는 건다가가 멀어요. 그보다는 마을 단위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읍면동 행

정센터,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서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는데... (#E)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아파트는 단지 밖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싫어해요. 커뮤니티센터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관리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힘들어요. 우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되는 거예요. (#C)

2) 돌봄공동체의 안정적 운영 전략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 운영 전략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도적 지원방식의 다양화, 운영진의 역량과 멘토의 노력 제공, 돌봄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이 도출되었다. 첫째, 돌봄공동체의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지원으로는 제도적 지원방식의 다양화가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 돌봄공동체의 특성과 운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지원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특정 사업에 대한 일시적 비용 지원보다는 돌봄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지원을 원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돌봄공동체 모두 운영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여러 차례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지원금 수혜로 실제 돌봄공동체의 운영에 도움을 받았지만, 사업공모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비 정산보고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서류작업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표현하였다. 취업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돌봄공동체의 전담 행정인력이 없이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해야 할 때 작성 방법의 어려움, 시간 부족 등을 경험하였다. 그 외 지원금 수혜로 부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 다소 부담스러웠거나 공동체 내에서 지원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의 누적들로 인하여 현재 지원사업에 공모하지 않기로 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금을 받고 나중에 제출자료를 만드는 게 힘들어요. 지원금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 안내도 해야 하고 여러 역할로 주어지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그것까지 하는 데는 힘이 부치더라고요. 시간적으로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F)

기관에서 지원금을 주면 공동체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쓴 그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요... 정부나 지자체는 성과지향적이다 보니 지원금을

이 정도 컸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원받는 공동체를 재촉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지원을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하는 지까지를 살펴보지 않아요. (#E)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돌봄공동체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면 아이들의 공간도 더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선생님들 처우도 좋아지겠지요. 그게 다 아이들의 돌봄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좋죠. 공동체마다 요구되는 사항이 다르고 특성도 다를 테니까요. (#A)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중간중간 양념 역할은 분명히 했어요. 힘든 시기에 몇백만 원씩 받았던 지원금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지원사업들은 서류작업들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이거 다음엔 받지 말자'라고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어요. (#J)

둘째, 돌봄공동체의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으로는 운영진의 역량과 멘토의 노력 제공이 제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운영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진행하는 돌봄공동체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관련 실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추고 있을 때 사업수행이 원활할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돌봄공동체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의사결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배조합원과 멘토의 도움은 돌봄공동체 운영에 결정적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앞서 돌봄공동체의 운영상 어려움도 운영진의 역량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험도 이야기되었는데, 연구참여자는 자녀돌봄뿐 아니라 '나돌봄, 우리돌봄'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상호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계 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고 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돌봄공동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돌봄공동체의 발전된 돌봄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돌봄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등록된 공동육아 초등과정 돌봄공동체의 경우 네트워킹이 가능하지만, 다른 조직특성을 가지고 있는 돌봄공동체는 지역 내의 돌봄공동체 간 서로의 존재를 모를 수 있고, 돌봄공동체 간 커뮤니케이션 시도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마련될 때 좋은 돌봄을 생산하고자 하는 돌봄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연하면, 연구참여자들은 앞서 제시한 세가지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 돌봄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 돌봄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데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돌봄공동체)초창기에 복지 쪽에서 일하는 분이 계셔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장소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나마 수월했지, 그런 분이 없는 저희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행정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취지로 모였다고 하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역 사회에) 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 이런 공간은 어떻게 대어하는지, 사업공모나 지원금 신청도 전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 번 해볼까 하는 의견도 주고... (#H)

저희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졸업한 선배 조합원을 찾아가 묻기도 하고, 주변에 수소문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한테 전화해서 상담하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참고할 만한 관련 자료들도 보내주시고, 해결하는 데 도움 될 만한 사람도 소개해 주고 했어요... (중략) 처음부터 그게 되는 건 아니예요. 몇 년간 관계와 신뢰가 쌓이고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니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면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J)

돌봄이라는 의미를 단순히 아이돌봄, 자녀돌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서로가 오픈하면서 우리 돌봄을 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제가 운영진이 되면서 '나돌봄, 우리돌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자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구요. 내년이 10주년이 되거든요. 구성원들 돌봄도 중요하잖아요. (#F)

저희도 성장하고 공동체를 진행하다 보니, 좋은 사례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직접 답사가서 면담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랑 맞는 것은 가져오기도 해요. (#C)

사회 안에 이러한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소개가 이루어졌으면 해요. 다들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돌봄공동체 사례들이 안내되면 힘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돌봄공동체들이 여러 상황으로 중단이 되니까 아쉬워요. 좋은 사례들을 보면서 해결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는 저희대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D)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돌봄공동체 참여와 운영에 대해 어

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고, 다년간 돌봄공동체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운영시 어려움 및 요구를 파악하여 실효성이 확보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에 참여 중인 취업여성 10인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돌봄공동체의 참여 사유에서는 더 나은 돌봄 발견과 돌봄공동체의 강점이 제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영유아기 때 공동육아어린이집 또는 육아공동체 참여 경험이 만족스러워 초등학교에 와서도 지역기반 자녀돌봄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공적돌봄에서 해결되지 못한 긴급돌봄과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참여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강점을 자녀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녀의 기질 및 성향이 이해 가능한 환경에서 돌봄이 가능하며, 방과후 돌봄시간 동안 아동으로서의 놀이권이 확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업능력이 증진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가능함이 제시되었다. 부모의 측면에서 살펴본 지역기반 돌봄공동체의 강점은 부모의 지속적인 관찰과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의 욕구가 반영된 부모교육의 정례화가 가능하였다. 또한, 지역기반 자녀돌봄 공동체의 강점으로 마을 안 유용한 인적자원 활용이 가능하고, 구성원 간에 든든한 사회적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의 돌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마을 내 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돌봄공동체 내 초등학교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제한된 등교 상황에서 인지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배움이 지속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사회 이웃 간 상호돌봄을 실천하는 돌봄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기반 공동체 활동 분야 중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영역으로 돌봄·교육공동체를 가장 높게 평가(43.4%)한 조사결과(조수빈·김현아, 2020)를 고려할 때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의 실현 방안 중 하나인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둘째,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지속 방안에서는 돌봄공동체 운영상의 어려움과 돌봄공동체 안정적 운영 전략이 제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다년간 돌봄공동체의 구성원과 운영진으로 참여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을 정리하면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관계의 어려움이, 물적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재정 및 돌봄공간 관리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지역기반 돌봄공동체가 운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적 운영 전략과 외부기관의 지원방식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구체적으로 돌봄공동체의 특성과 운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지원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고, 돌봄공동체 운영진의 역량 강화와 멘토의 조력이 적절하

게 제공되어야 하며, 돌봄공동체의 발전된 돌봄생산을 위한 지원으로는 돌봄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 리더십 등 인적자원의 영향력과 동시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만드는 물적 자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기반 초등학교 돌봄공동체의 강점으로 확인된 요인들과 운영상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족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만족스러웠던 영유아기 공동육아 어린이집 또는 육아공동체 참여 경험이 초등학교가 되어서도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참여로 이어진 결과를 고려할 때 돌봄공동체의 강점으로 지적된 요인들은 지역기반 자녀돌봄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녀돌봄 및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가 투영된 돌봄방식의 효과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돌봄공동체의 역량 강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돌봄공동체의 돌봄은 한 명의 돌봄 제공자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다. 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돌봄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를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돌봄의 생산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러한 돌봄공동체 운영과정에 공동체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이웃들의 역량도 이용될 수 있다.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의 형태로 제공되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는 함양된 전문적 역량에 의해 가능했다기 보다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자녀돌봄'이라는 생활 의제를 지역사회의 안에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공감대 형성으로 가능했다고 본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공동체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하며, 좋은 돌봄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돌봄공동체가 해당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돌봄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돌봄공동체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선배 돌봄공동체 참여자에 도움을 청하거나 유사 사안을 경험한 다른 지역의 돌봄공동체에 문의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기반 자녀돌봄 공동체의 안정적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활동가 또는 코디네이터의 개입이 필요함(차성란, 2019)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우리동네 돌봄공동체(<https://dolbomnet.work.kr>)'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전국 지역별 만 12세 이하 자녀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돌봄공동체 소개와 활동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방안으로, 해당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역기반 돌봄공동체의 성공 사례 소개는 소속 돌봄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효능감 획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돌봄공동체 간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돌봄공동체 형성 및 참여에 대한 욕구가 있는 대상들에게

는 실제적 정보 제공 등 동기부여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 등록된 돌봄공동체 소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돌봄공동체 소개 정보 이외 추가 매뉴얼을 제공하여 돌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등 면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른 지역의 돌봄공동체 관리자 또는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 창구로 설계되는 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돌봄공동체 대상 지원사업의 참여 경험이 모두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제반 준비과정 등의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부담감을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돌봄공동체 구성원 중 다수의 부모가 직업활동을 하며, 돌봄공동체 내 행정업무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사업 공모 준비와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이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이다. 행정업무 수행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서작성 위주의 결과보고서 제출보다는 이미 행정기관에서 보편화된 전자문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여건상 자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가 경험하는 어려움도 고려되어야 한다. 부모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공동체 내 개별 자가에서 일시적 돌봄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돌봄공동체의 집단 활동을 진행해야 할 경우, 장소 대여 등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소관부처에 따라 유관 사업과 연계된 열린육아방(공동육아 나눔터)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거주지와 이용 가능한 공공 돌봄공간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이용상 어려움이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또는 읍면동 내 돌봄활동이 가능한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 돌봄공동체의 규모와 모임 일정 등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사회 내 대여 가능한 공공시설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포털 구축도 필요하다.

셋째,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 관리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정해진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돌봄공동체에 대한 지원체계도 종료된다. 당연한 과정이지만, 돌봄공동체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는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에 소관부처별 돌봄공동체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이 사업종료 대상에게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 돌봄공동체 돌봄역량 강화로 지속적 운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돌봄역량 보유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에 대한 법제화 추진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는 공적돌봄과 함께 다년간 제도 밖 영역에서 방과후 돌

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축적된 양질의 돌봄 경험이 있다.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자녀돌봄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다소 제한적일 수 있는 제반 조건이 확대될 유용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초등학교 대상의 지역기반 온종일 돌봄 관련 정책 및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가정의 상황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각 사업 주체별 돌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돌봄공동체의 법제화 추진은 정부주도의 획일화된 모델이 아닌 민관 상생의 돌봄모델을 확보하여 초등학교 돌봄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협동조합 등에 준하는 조건을 갖춘 돌봄공동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지원 범위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경험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본 연구참여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 참여자로 연구대상을 확대하거나 돌봄공동체 참여 아동 관점의 인터뷰 자료 분석 등 진일보된 탐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보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의 위협과 변화의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다층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역기반 초등학교 자녀돌봄 공동체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어떠한 방향의 지원이 필요한지 세밀하게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경아 · 박미석 · 강복정 · 이영호 · 최새은 · 전지원 · 김미영(2020). 공적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3), 79-102. DOI : 10.22626/jkfrma.2020.24.3.005.
- 2) 김기영(2016). 마을공동체 운동에서 공동육아의 실천사례. 교육비평(37), 208-229.
- 3) 김소영 · 선보영 · 전미영 · 남지민(2017).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 김희연 · 유영성 · 고재경(2014). 복지공동체, 공공복지의 한계를 넘는다. 이슈 & 진단(경기연구원), 157, 1-26.
- 5) 박병준(2012). 지역공동체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사회연구, 20(4), 1-26.
- 6) 유해미 · 김문정(2013).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포럼, 37, 20-31.
- 7) 이아승 · 심미승(2020). 육아공동체에서 대안적 돌봄 가치 연구: 현상학적 체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행정학보, 54(3), 197-224. DOI : 10.18333/KPAR.54.3.197.
- 8) 이재희 · 김근진 · 엄지원(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9) 장명림 · 이희현 · 조진일 · 최형주 · 임봉조 · 강지원 · 김선미(2018). 학생 ·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초등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10) 장수정(2020). 초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분석 - 돌봄 민주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67(1), 125-152. DOI : 10.16975/kjfs.67.1.5.
- 11) 장수정 · 송다영 · 백경흔(2019).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공동육아 방과후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2, 251-287. DOI : 10.47042/ACSW.2019.02.62.251.
- 12) 진미정(2018). 가족정책 관점에서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개념화. 한국가족복지학, 23(2), 337-361. DOI : 10.13049/kfwa.2018.23.2.9.
- 13) 진미정 · 노신애 · 김아영(2018). 지역기반 돌봄공동체 모델 비교와 가족정책적 시사점.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11-212.
- 14) 조막래 · 김한별(2015).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 방안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5) 조수빈 · 김현아(2020). 코로나 뉴노멀시대,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지원방향: 뉴노멀은 마을에서부터 온다. 마을활동가 400인이 기록한 변화의 증거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16) 조유성 · 한창근(2019). 육아공동체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67), 61-90. DOI : 10.24300/jkscw.2019.09.67.61.
- 17) 차성란(2020). 돌봄공동체 리더들이 인식하는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에 대한 사례연구 - 제주지역 이주민 돌봄공동체 리더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3), 55-77. DOI : 10.22626/jkfrma.2020.24.3.004.
- 18) 차성란(2019). 대안적 돌봄으로서 공동체 돌봄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3), 109-132. DOI : 10.22626/jkfrma.2019.23.3.006.
- 19) 최현임 · 손가현(2021). 아동권리적 초등돌봄서비스 발전 방안 탐색 -다함께돌봄정책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761-770. DOI : 10.5392/JKCA.2021.21.03.761.
- 20) 하현상 · 이기태(2017). 마을공동체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중앙정부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2), 421-259. DOI : 10.18333/KPAR.51.2.421.
- 21) 한그루 · 하현상(2019).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리질리언스 시각을 통한 체계적 접근의 시

- 도. 지방정부연구, 23(1), 209-240. DOI : 10.20484/klog.23.1.9.
- 22) 황선영(2020). 돌봄 공동체를 통한 좋은 돌봄(good-care) 서비스 생산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근거이론 방법의 적용 - . 한국가족복지학회지, 67(4), 5-46. DOI : 10.16975/kjfs.67.4.1.
- 23) Barber, B. R.(1984). Strong Democr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24)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25) Pestoff, V.(2009). Towards a paradigm of democratic participation: Citizen participation and co-production of personal.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80(2), 197-224.
- 26) Swisher, R., Sweet, S. & Moen, P.(2004).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nd its life course fit for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281-292.
- 27)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21). <https://gongdong.or.kr>
- 28)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http://www.law.go.kr>
- 2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21). <http://www.seoulmaeul.org>
- 30) 우리동네돌봄공동체(2021). <https://dolbomnetwork.kr>
- 31)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19.04.11). 지역 중심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개최.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016>에서 2020.03. 인출
- 32) 한국개발연구원 보도자료(2021.04.22). [KDI 현안분석]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격차와 시사점. https://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967&media=poplink에서 2021.04. 인출
- 33) OECD Family Database(2021). Typology of Childcare systems : PF4.3 Out-of-school-hours care.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 투 고 일 : 2021년 06월 09일
- 심 사 일 : 2021년 06월 30일
- 게재 확정 일 : 2021년 08월 02일